

## “그레이 싱어, 잘 좀 하그레이”

시즌 초반 불같은 강속구를 뿌려대며 KIA 타이거즈의 ‘원·투 편치’로 자리매김한 용병 그레이 싱어(31·사진)가 최근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어 KIA 관계자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그레이이는 을 시즌 초반 3경기에서 23이닝 동안 2실점, 방어율 0.78의 놀라운 성적으로 KIA 마운드의 에이스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승운이 따르지 않아 1승을 챙기는데 그쳤다.

그레이이는 지난달 12일 첫 출전한 두산전에서 7.2이닝 1실점 호투하고도 1-1로 비겨 승수를 챙기지 못했고, 같은날 25일 SK전도 7.1이닝 1실점으로 완벽에 가까운 피칭을 했지만 팀이 2-3으로 패해 다 잡은 1승을 날렸다.

잘 던지고도 승수를 챙기지 못한 그레이가 낙담했을까? 눈부신 활약을 보인 그레이이는 SK전 이후 18일 현재까지 4경기 연속 내리막 길을 걸고 있다.

지난달 30일 삼성전에서 5이닝 5자책점으로 패전투수가 될 때만 해도 ‘잠시 흔들린 것이 아니냐’는 긍정적인 분석이 주류를 이뤘다.

하지만 지난 5일 한화전 2이닝 2자책점으로 패전 투수가 된 뒤 지난 11일 SK전 5이닝 4실점, 16일 현대전 4.2이닝 10안타(1홈런), 3실점 등 최근 4경기에서 1승 3패로 부진하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그레이의 부진에 대해 자신의 주무 기인 150km를 넘나드는 직구의 무브먼트(공의 움직임)가 예전만 못한데다 체인지업의 위력이 다소 저하됐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그레이는 지난주 장암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등 컨디션마저 최악이다.

그레이이는 “지난주 몸이 좀 아픈 이후 체인지업의 제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면서 “일시적인 현상으로 다음 경기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KIA 서정환 감독도 “요즘 그레이의 컨디션이 다소 떨어진 게 사실이지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면서 “슬럼프나 부상은 없다”고 밝혔다.

올 시즌 “V10”을 꿈꾸는 KIA 마운드 핵인 그레이가 자신의 말처럼 다음 경기에서는 부진을 털고 재 도약하기 기대해 본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봉중근 LG 입단 계약금+연봉 13억5천만원



### 23일 맞대결

박찬호-이치로 22일 투타대결

은 날 경기에 선발 출격할 것으로 예상돼 맞대결 성사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금까지 서재웅의 고교 2년 후배인 최희섭(27·보스턴 레드삭스)이 서재웅, 김병현, 박찬호(33·샌디에이고 파드리스), 김선우(29·콜로라도) 등과 한국인 투·타 대결을 한 적은 있으나 선발 맞대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월드베이스볼克拉식(WBC) 한국 4강 신화의 주역인 광주일고 동문 서재웅(29·LA 다저스)과 김병현(27·콜로라도 로키스)이 처음으로 한국인 빅리거 투수 선발 맞대결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그레이더리 리틀 디자스 감독은 18일(이하 한국시간)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선발 로테이션 순서를 조정, 당초 21일 LA 에인절스 전 등판 예정이던 서재웅을 뒤로 미루고 브렛 톰코와 데릭 로를 21일과 22일 에인절스 전에 차례로 등판시킨다고 밝혔다.

서재웅은 23일 디자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콜로라도 로키스와 경기에 등판한다.

이에 따라 시즌 2승 사냥을 노리는 서재웅은 고고 1년 후배 김병현이 등판 일정상 같을 것이다.

샌디에이고는 18일 취재진에 배포하는 보도자료인 게임노트를 통해 박찬호가 오는 22일 오전 5시5분 세이프코필드에서 열리는 미국프로야구 시애를 매리너스와 원정경기에서 선발 등판한다고 밝혔다.

이달 들어 3경기(22이닝)에서 단 1자책점

만을 허용하며 방어율 0.41(시즌 3.27)의 위력투를 뽐낸 박찬호가 여세를 몰아 시즌 3승을 수확할 좋은 기회다.

이치로는 올해 타율 0.299로 이전의 매서운 타격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KIA 서브넥 2군행

퇴출 수순 밟기인가.  
KIA 타이거즈의 용병 타자 마이크 서브넥(30·사진)이 2군으로 강등됐다.

KIA는 18일 “서브넥과 투수 조태수를 2군으로 내리고 내야수 이현곤과 투수 차정민을 1군 엔트리에 등록했다”고 밝혔다.

서브넥은 이날부터 잔류군에서 전답 타격 코치와 함께 열흘동안 집중적인 훈련을 받는다. 서브넥은 최근 6경기에서 타율 1할9푼에 머무는 등 극심한 타격 부진에 빠지며 하위 타순인 8번으로 밀려나면서 퇴출 가능성에 기저기기도 했다.

KIA 서정환 감독은 “타격감 조율을 위해 서브넥을 잔류군으로 내려보냈다”며 “타격



감을 찾지 못한다면 퇴출 여부도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퇴출 가능성을 암시했다.

지난 1월 연봉 20만달러를 받고 KIA에 입단한 서브넥은 을 시즌 현재 30경기에 출전, 타율 0.204(3홈런 9타점)을 기록하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20일 ‘레드페스티벌’

### 21일 ‘목포대의 날’

#### KIA 다양한 이벤트 마련

KIA타이거즈는 원정경기에서만 입는 붉은색 유니폼을 착용하고 경기에 나선다. 특석 입장객에게는 레드마운틴 세트를 증정하고, 각종 행사의 경품도 레드마운틴으로 증정한다. 또 ‘안타왕’ 이용규와 ‘특급 셋업맨’ 정원의 팬 사인회도 열린다.

21일은 네임데이 이벤트로 ‘목포 대학교의 날’로 정하고 재학생 및 교직원 1천 명이 단체 관람에 나설 예정이다.

댄스동아리 코마의 공연이 열리고 시구는 목포대학교 임병선 총장이 던질 예정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신문과 함께 떠나는 월드컵 세계’

#### 한국신문협회 ‘월드컵 패스포트’ 추진

한국신문협회(회장 장대환)은 한국노스케스코그의 후원과 KTF 기념품 협찬으로 월드컵을 신문활용교육(NIE)에 접목시킨 ‘월드컵 패스포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월드컵 패스포트 프로젝트는 ‘신문과 함께 떠나는 월드컵 세계’, 나만의 월드컵 기록장을 만들자!’는 슬로건 아래 전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이 패스포트는 여권을 본따 만든 NIE 워크북의 하나로, NIE와 월드컵이라는 메가 이벤트를 조화시켜 ‘재미있는 교육’을 실현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월드컵 패스포트’는 54쪽 분량으로 각 폐

KBC)

▲프로야구<한화-두산>(18:00·KBS SKY SPORTS), <롯데-삼성>(18:30·MBC ESPN)

▲일본 프로야구<카루엔-요미우리>(19:05·SBS스포츠)

20일(토)

▲메이저리그<시카고C-시카고W>(04:55·Xports)

55·Xports)

▲서울 한국여자 오픈골프 1R(14:40·

#### 20일 ‘레드페스티벌’

#### 21일 ‘목포대의 날’

#### KIA 다양한 이벤트 마련

KIA타이거즈는 원정경기에서만 입는 붉은색 유니폼을 착용하고 경기에 나선다. 특석 입장객에게는 레드마운틴 세트를 증정하고, 각종 행사의 경품도 레드마운틴으로 증정한다. 또 ‘안타왕’ 이용규와 ‘특급 셋업맨’ 정원의 팬 사인회도 열린다.

21일은 네임데이 이벤트로 ‘목포 대학교의 날’로 정하고 재학생 및 교직원 1천 명이 단체 관람에 나설 예정이다.

댄스동아리 코마의 공연이 열리고 시구는 목포대학교 임병선 총장이 던질 예정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20일 ‘레드페스티벌’

#### 21일 ‘목포대의 날’

#### KIA 다양한 이벤트 마련

KIA타이거즈는 원정경기에서만 입는 붉은색 유니폼을 착용하고 경기에 나선다. 특석 입장객에게는 레드마운틴 세트를 증정하고, 각종 행사의 경품도 레드마운틴으로 증정한다. 또 ‘안타왕’ 이용규와 ‘특급 셋업맨’ 정원의 팬 사인회도 열린다.

21일은 네임데이 이벤트로 ‘목포 대학교의 날’로 정하고 재학생 및 교직원 1천 명이 단체 관람에 나설 예정이다.

댄스동아리 코마의 공연이 열리고 시구는 목포대학교 임병선 총장이 던질 예정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20일 ‘레드페스티벌’

#### 21일 ‘목포대의 날’

#### KIA 다양한 이벤트 마련

KIA타이거즈는 원정경기에서만 입는 붉은색 유니폼을 착용하고 경기에 나선다. 특석 입장객에게는 레드마운틴 세트를 증정하고, 각종 행사의 경품도 레드마운틴으로 증정한다. 또 ‘안타왕’ 이용규와 ‘특급 셋업맨’ 정원의 팬 사인회도 열린다.

21일은 네임데이 이벤트로 ‘목포 대학교의 날’로 정하고 재학생 및 교직원 1천 명이 단체 관람에 나설 예정이다.

댄스동아리 코마의 공연이 열리고 시구는 목포대학교 임병선 총장이 던질 예정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20일 ‘레드페스티벌’

#### 21일 ‘목포대의 날’

#### KIA 다양한 이벤트 마련

KIA타이거즈는 원정경기에서만 입는 붉은색 유니폼을 착용하고 경기에 나선다. 특석 입장객에게는 레드마운틴 세트를 증정하고, 각종 행사의 경품도 레드마운틴으로 증정한다. 또 ‘안타왕’ 이용규와 ‘특급 셋업맨’ 정원의 팬 사인회도 열린다.

21일은 네임데이 이벤트로 ‘목포 대학교의 날’로 정하고 재학생 및 교직원 1천 명이 단체 관람에 나설 예정이다.

댄스동아리 코마의 공연이 열리고 시구는 목포대학교 임병선 총장이 던질 예정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20일 ‘레드페스티벌’

#### 21일 ‘목포대의 날’

#### KIA 다양한 이벤트 마련

KIA타이거즈는 원정경기에서만 입는 붉은색 유니폼을 착용하고 경기에 나선다. 특석 입장객에게는 레드마운틴 세트를 증정하고, 각종 행사의 경품도 레드마운틴으로 증정한다. 또 ‘안타왕’ 이용규와 ‘특급 셋업맨’ 정원의 팬 사인회도 열린다.

21일은 네임데이 이벤트로 ‘목포 대학교의 날’로 정하고 재학생 및 교직원 1천 명이 단체 관람에 나설 예정이다.

댄스동아리 코마의 공연이 열리고 시구는 목포대학교 임병선 총장이 던질 예정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20일 ‘레드페스티벌’

#### 21일 ‘목포대의 날’

#### KIA 다양한 이벤트 마련

KIA타이거즈는 원정경기에서만 입는 붉은색 유니폼을 착용하고 경기에 나선다. 특석 입장객에게는 레드마운틴 세트를 증정하고, 각종 행사의 경품도 레드마운틴으로 증정한다. 또 ‘안타왕’ 이용규와 ‘특급 셋업맨’ 정원의 팬 사인회도 열린다.

21일은 네임데이 이벤트로 ‘목포 대학교의 날’로 정하고 재학생 및 교직원 1천 명이 단체 관람에 나설 예정이다.

댄스동아리 코마의 공연이 열리고 시구는 목포대학교 임병선 총장이 던질 예정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20일 ‘레드페스티벌’

#### 21일 ‘목포대의 날’

#### KIA 다양한 이벤트 마련

KIA타이거즈는 원정경기에서만 입는 붉은색 유니폼을 착용하고 경기에 나선다. 특석 입장객에게는 레드마운틴 세트를 증정하고, 각종 행사의 경품도 레드마운틴으로 증정한다. 또 ‘안타왕’ 이용규와 ‘특급 셋업맨’ 정원의 팬 사인회도 열린다.

21일은 네임데이 이벤트로 ‘목포 대학교의 날’로 정하고 재학생 및 교직원 1천 명이 단체 관람에 나설 예정이다.

댄스동아리 코마의 공연이 열리고 시구는 목포대학교 임병선 총장이 던질 예정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20일 ‘레드페스티벌’

#### 21일 ‘목포대의 날’

#### KIA 다양한 이벤트 마련

KIA타이거즈는 원정경기에서만 입는 붉은색 유니폼을 착용하고 경기에 나선다. 특석 입장객에게는 레드마운틴 세트